

한국 닭에 관한 歷史的 고찰

강 면 희

(고려대 농대교수)



나는 닭(養鷄)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지만 庚申年을 보내고 申酉年 즉 닭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양계 협회에서 본고의 집필의뢰가 있어 과거에 약간 수집해 놓은 자료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所見을 참고로 몇 가지 엮어 보려고 하는데 먼저 1981년의 뜻있는酉年을 맞이하는 養鷄關係 여러분은 물론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養鷄協會의 끝없는 발전을 기원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닭의 歷史的인 사실을 기술하기 前에 먼저 根元의 인 면에서 조금 살펴보면 닭의 原產地에 관해서는 아시아의 東部 또는 東南部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 地方에는 집 닭의 祖上으로 생각되는 들닭(野生鷄)의 형태의 것이 오늘날에도 살고 있다.

아시아 지방에는 野生鷄의 종류가 대단히 많고 分布地域도 넓은데 이 가운데서 버마·스마트라島 등의 森林地帶에 널리 퍼져 살고 있는 방키바닭(Bankivahuhn)이 집닭의 祖

上일것이라는 것이 저 유명한 進化論者 다윈에 의하여 주장되었고 현재까지 이것을 부인할 만한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집닭에 대한 世界最古의 흔적은 印度의 古代 인다스江 文明의 유적속에 나타나 있다. 즉 이 지역 부근에서는 기원전 2,500년대부터 닭의 모양을 한 印章, 粘土像을 비롯 닭뼈(鷄骨)까지 나왔다고 한다. 한(수탉)粘土像에는 모이 먹이는 접지까지 조형되어 있고, 印章 가운데는 2마리의 닭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어 투계(鬪鷄)가 닭의 原初의 飼育目的의 하나가 아니었던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기도 하고 있다.

그리고 中國에서도 그 初期의 文獻에는 鬪鷄와 關聯된 전이 있다. 即 「列子有記」에 周나라의 宣王이 투계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고, 孔子의 弟子인 左丘明이 지은 春秋左氏傳에도 季氏와 邕氏가 투계를 하였다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事物紀元類集」에는 鬪鷄가 周時代부터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다. (李圭泰 韓國家畜文化史 (22) 닭 ① 畜產振興 통

권 22)

中國의 古典인 周禮에는 말(馬) · 소(牛) · 羊 · 돼지(豚) · 개(犬)와 더불어 닭(鷄)을 六畜이라 하여 일찍부터 飼育해 온 것은 明白한 일이지만 中國의 養鷄歷史는 印度나 古代 이집트 보다는 늦어서 기원전 1700년 전후부터라고 추측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닭의 由來는 어떠한가?

우리 韓半島는 中國 文化圈에 속해 있는關係로 古代 文化的 流出入은 우선 中國과의 연계성을 생각하여 보지 않을 수 없는 터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南方에서 그 流源을 찾아 보아야 할 것도 적지 않다. 닭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한국의 닭의 由來에 관해서 印度와 관련성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산스크릿 영어사전」에 한국에서 닭을 부를 때 구구「KuKKu」하고 명칭은 닭(TALK)라고 한다는 것과 巴黎語로 닭을 쿡쿡(Kuk Kuk)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관련시켜서 닭이라는 명칭이 印度에서 온 것이라고 추측하고 닭의 原產地가 東南亞 地方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이 地域이 닭이 北方(中國)을 거치지 않고 東南亞(南方)에서 直接 흘러 들어온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洪以燮 朝韓科學史)

韓國에 있어서의 닭의 사육기원에 관해서 책에 나타나 기록은 다른 家畜에 비해서 적지만 三國志 韓傳에

「꼬리가 5자(尺)이나 되는 아름다운 닭이 난다.」

라고 한 記錄이 아마 最初의 것이 아닌가 한다. 또 海東繹라는 책에는

「韓羊과 韓兔 그리고 韩鷄는 本來부터 韩에서 나온 것이라.」

는 기록이 있으나 이 대목은 여기의 韩이 과연 半島內의 三韓地方을 지칭한 것인가에 대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또 三國時代에 들어와서는 隨書에는 「百濟에는 五穀이 있고, 소(牛), 돼지(豬), 닭(鷄)이 많다.」

라 하여 百濟에서는 이와같은 家畜이 一般 家庭에 널리 길러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같은 隨書에

「百濟의 風土와 所產이 高句麗와 더불어 거의 같다.」

고 하여 三國에서는 거의 같은 상태로 닭을 비롯한 家畜들이 보편적으로 사육되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머리를 돌려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은 지금도 日本에서 길러지고 있는 長尾鷄의 문제이다. 日本에서는 이 長尾鷄를 저들의 땅의 土產種이라고 하고 있지만 前記한 韓의 細美鷄와의 關聯性 與否는 흥미있는 문제로서 앞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아니될 重要課題라고 생각된다. 이에 關해서는 필자가 이미 數次에 걸쳐 論考한 바 있으나, 李도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貴重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즉 本草綱目에는

「玄菟에 樂朗에 닭의 종류가 많다.」

고 하였고, 「馬志」에는

「藥用으로 하는 닭으로서는 朝鮮產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며 꼬리가 3~4尺이나 되고 맛도 좋고 살고기가 많은 점에서도 다른 종류의 닭보다 뛰어난다.」

고 했고, 「本草經」에는

「살고기가 많고 色이 흰 질이 좋은 닭이 朝鮮의 平澤에서 난다.」

고 하였고, 「蓆略」이라는 문헌에도

「樂郎의 닭은 藥으로 하기에 가장 좋다.」는 등의 자료에 의하여 三韓 또는 三國時代의 長尾鷄가 外觀 뿐만 아니라 藥用으로 혹은 食用으로서 그 진가가 中國에 까지 알려진 사실을 고증으로 日本의 長尾鷄은 그 自

身들의 獨創의인 것이 아니라 韓國의 細尾鷄 와의 關聯性을 一理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라고 하여 무방할 듯 하다.

그는 「長尾鷄에 관한 최초의 日本 기록은 7세기 초엽의 「萬葉集」에 나오는데, 韓의 細美鷄에 관한 기록은 紀元前의 일이다. 저명한 콘라드 켈러가 그의 「家畜系統史」에서 長尾鷄의 元祖를 日本에 구한 것은 20세기 초엽까지 日本에는 長尾鷄이 있었고 韓國에는 이미 滅種되고 없었던 까닭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또 더욱 그럴듯이 설명되고 있는 點은 日本에 오래도록 남아 있던 長尾鷄의 산지는 土佐(일본 발음: 도사)에 국한되었었고 그 닭을 그 지방에 처음 갖고 온 것은 長曾秋部元親이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武將으로 壬辰倭亂 때 從軍하여 한국에 왔던 일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이 진귀한 닭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으로 推理하고 있다. 그렇다면 長尾鷄가 적어도 李朝 中葉인 壬辰倭亂當時까지는 존재 하였다는 것이 되고, 日本의 長尾鷄의 歷史는 그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結論이 나오게 된다. 筆者로서는 하나의 與味있고 貴重한 새로운 知見을 얻은 셈이다. 그러나 과문의 탓인지 상금 長尾鷄에 관한, 특히 壬辰倭亂當時의 기록은 듣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問題에 대해서는 진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推理를 뒷바침하는 또 하나의 기록이 韓國 닭의 품종과 관련한 것에 있다. 그 점은 成害 5년 12월에 한국에 使臣으로 왔던 日本僧이 선물로 가지고 돌아간 물품 가운데 「里蓬頭鷄」 한쌍과 「白尾頭鷄」 한쌍씩이 들어 있었다 한다. 쑥대밭같이 엉킨 더벅머리를 가리킨 봉두난발「蓬頭亂髮」이란 말이 있듯이, 닭 머리가 헝크러진 겹은 털로 덮혀 있는 品種, 지금 말로하면 겹은 羽毛冠(?)의

品種이 있었던 것으로 飼育品種의 多樣性을 엿볼 수 있거니와, 壬亂當時 이런 것을 포함한 長尾鷄 같은 것이 존재하였다면日本人들이 눈에 띠는데로 한마리도 남기지 않고 노략질을 해갔을 것도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것은 여하간에 오늘날 우리 나라에 古代에 있었던 貴重한 닭의 品種들이 滅種되고 없다는 사실과 日本에 그와 같은 飢餉當用의 훌륭한 닭이 保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견주어 볼 때 우리로서는 反省할 여지가 많으며, 畜產技術部門에 있어서도 單只 產業의이고 營利追求의 畜產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畜產, 우리 養鷄界의 歷史的인 것, 固有의 것을 고이 간직하고 宣揚하는 일도 많이 생각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여 두고자 한다.

이러한 뜻에서 닭의 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養鷄業이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物貨面에서 利用厚生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닭과 관련된 歷史的, 民俗의인 部門도 개발하여 養鷄人뿐만 아니라 모든 國民의 精神的 양식이 풍부하여졌으면 하여 이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간추려 보기로 한다.

人類는 그 歷史가 시작되면서 닭을 포함한 모든 家畜과 精神의인 관계를 맺어 왔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닭의 설화는 우선 신라의 國號였던 「鷄林」 故事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脫解王 4년에 郡公이 밤에 月城을 지나다가 나무가지에 金檳(궤)가 매달려 光彩를 띠고 그 밑에서 흰 닭이 울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王은 궤를 열고 玉童子를 얻으니 이가 곳 金闕智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닭은 瑞兆로 보고 富貴榮華의 상징으로 삼았는가 하면 또 무슨 조짐의豫示者로 여겨지기도 하여 占치는데 이용되

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民俗에 「鷄鳴占」이란 것이 그 것이다. 즉 정월 대보름날 먼동이 트기 전에 집닭의 우는 소리가 열번이 넘으면 그 해에는 豊年이 들고, 또 닭의 날인 正月 초하루 날이 맑으면 그 해에 닭이 잘되고 뜻으면 닭의 병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한 것 등이다. 또 닭을 「初農」이라 하여 병아리를 많이 깨면 풍년이 온다고 占쳤다고 하기도 한다.

이以外에 닭은 사람의 人格과 비유 하여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傳해 지기도 하고 있다.

漢文辭典을 보면 「五德」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文字 그대로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다섯 가지의 「德」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儒教의 선비가 갖추어야 할 것과, 武人으로서 지켜야 할 두 종류가 있다. 前者の 경우는 부드러움(溫) · 어짐(良) · 용기(勇) · 믿음(信) · 사양(讓)의 다섯 가지를 말하는데, 후자의 경우는 지혜(智) · 어짐(仁) · 믿음(信) · 용기(勇) · 엄정(嚴)의 다섯 가지로서 위 · 아래의 두 항목이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五德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는 家畜이나 動物에도 있다. 이것은 물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기도 하지만 닭 이야기를 쓰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韓詩外傳(漢나라의 韓嬰이란 學者가 지은 古事古語에 관한 책)에는 「닭의 五德」이란 것이 있고, 또 淵鑑類函(清代의 張英등이 지은 故事成語를 모아 주석을 붙인 百科사전)에는

고양이(猫)의 五德이란 것이 있다.

即 닭의 五德은 文 · 武 · 勇 · 仁 · 信으로

- ① 머리 위에 冠을 썼으니 「文」이요,
 - ② 발에 三支槍을 갖고 있으니 「武」요,
 - ③ 敵앞에 용감히 싸우니 「勇」이요,
 - ④ 모이(飾)를 보고 서로 부르니 「仁」이요,
 - ⑤ 새벽을 지켜 떼를 놓치지 않으니 「信」
- 이라는 것이다.

또 고양이의 五德은 무엇이냐 하면仁 · 美禮 · 智 · 信의 다섯 가지로

- ① 쥐를 보고도 잡지 않으니 「仁」이요,
- ② 쥐에게 먹이를 빼앗기고도 성내지 않으니 「美」요,
- ③ 손님의 밥상이 나오면 맨 먼저 나와서 인사하니 「禮」요,
- ④ 숨겨둔 물건을 잘 찾는 것은 「智」요,
- ⑤ 겨울날에 반드시 기어 부엌에 오르는 것은 「信」이라는 것이다.

닭에 관한 歷史的 사실 내지는 古事說話는 이 이외에도 많지만 지면의 제한으로 더 적을 수가 없으나 아무튼 80년대 初頭에 닭해를 맞아 그것이 상징하듯 우리나라에 瑞雲이 드리워지고, 富貴와 榮華가 가득 차기를 希望하며, 이 瑞鳥가 지키는 五德처럼 우리 國民도 지난 날과는 좀 달리, 温良하면서도 勇氣가 있고, 믿음과 謙讓의 德을 갖추어 서로 마음놓고 잘 살 수 있는 社會를 이루하도록 養鷄人부터 앞장서서 힘썼으면 참으로 意義 있는 일이 되리라 생각하여 送庚迎酉에 있어서 養鷄人の 幸運과 養鷄의 發展을 거듭 기원합니다